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 관련요인:연령집단별 분석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of Elderly in Volunteer Activities

김여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Yojin Kim(k96jin@hallym.ac.kr)

요약

한국의 고령화로 증가한 노인인구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사회활동의 참여가 있다. 다양한 사회활동의 하나 중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며 개인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요인을 분석하되 노인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연령집단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의 2차년도 자료에서 55세 이상의 노인을 예비노인(55세-64세), 전기노인(65세-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기술통계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매우 낮았으며,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노인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령별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 중심어 : | 자원봉사참여 | 노인 | 사회적 관계 |

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the aging population in Korea, the welfare of Korean elderly has become one of main concerns of the society. One essential factor that may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s th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Involvement in the volunteer activity is one form of social participation that benefits both society and individ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Korean elderly'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nd factors related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ntext of different age group. People aged 55 and over from wave 2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re grouped into pre-old(55-64), young old(65-75), and old old (75 and older). Main analytic tools include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relationships of the elderly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related with their participation with voluntary activities. Also highlighted i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 keyword : |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 The Elderly | Social Relationship |

I. 서론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의 결과 다양한 사회문

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에 대처할 만한 사회적 안정망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변동 중에서 가장 심각

접수번호 : #130304-007

접수일자 : 2013년 03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4월 04일

교신저자 : 김여진, e-mail : k96jin@hallym.ac.kr

한 변화 중 하나는 고령화이며 이처럼 급작스레 증가하는 노년층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각별한 사회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있으나 그 또한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섹터로서 시민사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주요영역의 하나인 자원봉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수준은 성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이 2006년 5.7%에서 2011년 12.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1],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05년 20.5%이던 것이 2008년에도 여전히 20%선에 머무는 답보상태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다[2].

한편으로 노년학에서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인 성공적 노화론[3]에서는 노인의 활발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 활동은 성공적 노화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그러한 사회적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얻는 한 가지 시사점은 노인은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자원봉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일 때는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4].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삶의 질의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의 개인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여러모로 입증한 바 있다[4-6].

이처럼 노인의 삶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체 한국 성인의 자원봉사참여율보다도 더 저조하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7]에서 65세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3.9%에 불과하고, 86.9%는 평생 자원봉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요 외국의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미국, 23.8%, 일본, 26.0%, 영국은 53%인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8].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참여가 저조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최근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다른 형태의 사회적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하면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연관이 있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현황과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거나[9][10], 자원봉사자의 관리나 관련 매뉴얼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들로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나[11], 참여자체와 관련된 개인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내적 다양성이 뚜렷해지고 특히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노인인구라 해도 연령층별로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12-14]. 그렇다면 이들 노인인구의 자원봉사를 비롯한 여러 현상도 일단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해 볼 필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노인의 자원봉사참여와 관련된 요인을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노인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는 어떠한가?
2.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관련 있는 변인은 어떤 것인가?
3.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및 이에 관계되는 요인들은 노년층의 연령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노년학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성공적 노화의 관점을 비롯하여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연속이론

(Continuity theory) 등이 있는데 특히 활동이론은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노년기에 이르러 역할상실 또는 감소를 경험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이다. 사회참여는 사회활동(social activity)과 혼용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형성의 주요기제의 하나이며 [15], 사회참여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도 있으며 [16],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17], 우울감을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사실 등을 발견한 연구들이 있다 [18].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 관련 있는 보기만 몇 가지 제시하면 [19][20], Kahneman의 Frame이론,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활동이론 등을 들 수 있다. Kahneman의 Frame이론은 노인의 마음(생각)의 틀을 바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고 [21], 교환이론에서는 합리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을 최대화 하는 행동이나 인간관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이타적인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집단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한다 [22].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활동이론은 사회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노년기의 긍정적 적응과 안녕,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특히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한 역할을 대체할만한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그러한 사회적 활동의 한 유형이므로 노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제로 작용하는 사회활동 중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활동이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관련성은 노후 활동의 유형과 노인 각자의 처한 상황 및 활동에 대한 개인의 의미부여

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9][23].

한편, 상기 이론들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사회적 차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비추어 외부환경적 요소도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현기 [24]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일반생태학 이론과 부르디외와 퍼트만의 사회자본의 개념 [25]을 근간으로 하는 자원이론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외부적인 요인들 즉, 생태 환경, 정책 환경, 물리적 환경 등과 자원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망, 집단소속, 가족유대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영향하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24].

국내의 노인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노인의 자원봉사 현황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의 효과의 검증이나 기관차원에서 자원봉사자의 관리에 관한 연구가 [26] 주로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우울,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안녕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며 [9][10][27],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노인의 참여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9].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며 [28]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6].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경험적 차원에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종교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와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와 같은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5][19]. 그 결과를 요약하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종교가 있으면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았다 [29][30].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낮은 결과도 있는 반면 [25],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지 않은 결과도 있었다 [9].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사회활동참여율이 높으며 [31][32], 공식적 상호작용, 비공식 상호작용,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자원봉사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25]. Kim 외 [33]는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학력이나 건강상태는 인적 자본요인이 될 수 있으며, 종교는 문화적 자본요인, 독거여부나 사회적 관

계는 사회자본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종교, 독거여부가 자원봉사참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개인적 요인들에 대한 탐색 또는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검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물론 인프라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첫째 이유일 것이다 [11]. 국내에서 노인의 자원봉사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11].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참여를 하는 노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11],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에 대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축적된 경험적 자료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요인들인 인구학적 변인, 건강요인, 그리고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노인인구의 다양성

전통적으로 에릭슨의 인간발달단계이론에 의하면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 생애를 돌아보며 자아통합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시기로 본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년기를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노년기를 단일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연령의 범위와 범주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2][34]. Neugarten[35]은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노년기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지적은 최근 노년학에서도 노인을 동일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14].

현재 국내 정부통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많은 연구가 노인을 65세 이상 인구집단으로 간주한다[36]. 그러나 Levinson[37]이 제시한 생애주기별 발달단계관점에서는 노년에 이르는 과도기(60-65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65세부터 75세까지를 전기노인, 75세부터 90세까지를 후기노인, 그리고 90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으로 구분하는 예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55-75세를 전기노인, 75세 이상을 후기노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36]. 이처럼 아직까지는 노인의 연령집단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틀이 잡혀 있지는 않으나 노인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학문적 동의는 존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는 접근과 함께 고령화의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등장하였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아울러 45세 이상자의 중고령자 집단을 포함하여 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는 추세다[34]. 노인인구의 다양성의 인정과 노인인구 범주의 확대로 예비노인(55-64세), 연소노인(65-74세), 고령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는 연구도 있다[38].

이와 같이 노인의 범주를 나누어 분석한 연구에서는 실지로 집단별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연령에 따른 상이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후기노인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한 것이다[13][39]. 그러나 후기노인이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가령 노인암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는 연령집단이 높은 노인암환자의 정서적 삶의 질은 연령이 낮은 노인암환자보다 높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40].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연령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원봉사를 포함한 사회활동은 연령에 따른 신체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분석도 연령별로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임을 뚜렷이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와 관련된 요인들을 노인 개인의 차원에서 탐색하되 연령별로

그 범주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노인집단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잠재 노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한국노년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2차년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령화 연구 패널의 자료수집방법은 지역 및 주거형태별로 층화된 모집단 조사구로부터 단순무작위방법으로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이며,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면접관이 방문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CAPI)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는 예비노인(55세이상 65세미만, 2,397명), 전기노인(65세이상 75세미만, 2,505명), 후기노인(75세이상, 1,535명)의 세 연령집단에 한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로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변변인이다.

독립변인으로는 성별, 학력, 종교, 노동여부,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읍면부의 거주지역, 독거여부,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감(0-100점)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리키는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좋음-매우 나쁨의 5점 척도)와 CES-D10으로 측정된 우울의 정도 등의 건강관련 변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0-100점), 자녀와의 연락 빈도(1 거의 매일-10 연락하며 지내지 않음), 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한 사회활동의 참여 수준(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 관련단체, 정치단체 등 참여하는 활동의 개수), 친구나 이웃과 같은 친한 사람과의 만

남의 빈도(1거의 매일-10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등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변인 등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Version 19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와 관련된 변인의 조사를 위한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한국노인을 예비노인, 전기노인 그리고 후기노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별로 성별, 학력, 노동여부 등에서 상이한 인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빈도,%)

구분		예비노인 (N=2397)	전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성별	남	1117(46.6)	1115(44.5)	569(37.1)
	여	1280(53.4)	1390(55.5)	966(62.9)
연령(평균, sd)		59.4, 2.83	69.3, 2.81	80.5, 4.66
학력	초졸이하	888(37.0)	1572(62.8)	1226(79.9)
	중졸	567(23.7)	368(14.7)	123(8.0)
	고졸	697(29.1)	377(15.0)	113(7.4)
	대졸이상	245(10.2)	188(7.5)	73(4.8)
종교	기독교	659(27.5)	684(27.3)	427(27.8)
	불교	621(25.9)	613(24.5)	322(21.0)
	기타	16(0.7)	15(0.6)	6(0.4)
	없음	1101(45.9)	1193(47.6)	780(50.8)
거주지역	도시	1858(77.5)	1758(70.2)	1047(68.2)
	읍면부	539(22.5)	747(29.8)	488(31.8)
동거가족	독거	157(6.5)	361(14.4)	295(19.2)
	비독거	2240(93.5)	2144(85.6)	1240(80.8)
노동여부	예	1239(51.7)	754(30.1)	141(9.2)
	아니오	1158(48.3)	1751(69.9)	1394(90.8)
경제상태만족감 평균(sd)		53.5(21.22)	47.9(21.80)	42.9(22.04)

인구학적 특성 외에 건강관련 변인, 사회적 관계 관

런 변인들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활동 유형별로 볼 때 예비노인이나 전기노인은 종교모임이나 친목모임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50%이상이었으나, 후기노인은 각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친목모임도 39.9% 정도에 그쳐서 후기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인구학적 특성 외의 주요 변인(평균, sd)

구분	예비노인 (N=2397)	전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주관적 건강상태(범위 1-5)	3.2(0.88)	2.8(0.89)	2.5(0.88)
우울 (범위 0-10)	3.3(2.83)	4.2(2.99)	5.2(2.97)
배우자관계만족도 (범위 0-100)	68.8(17.50)	66.4(17.70)	65.1(19.08)
자녀연락빈도 ^a (범위 1-10)	3.2(2.38)	3.6(1.54)	4.1(1.67)
사회활동참여(범위 0-5)	1.2(0.77)	0.9(0.76)	0.7(0.70)
종교모임참여(빈도,%)	1839(76.7)	1927(76.9)	293(19.1)
친목모임참여(빈도,%)	1653(69.0)	1377(55.0)	613(39.9)
여가모임참여(빈도,%)	91(3.8)	109(4.4)	47(3.1)
동창회참여(빈도,%)	490(20.4)	267(10.7)	84(5.5)
정당참여(빈도,%)	12(0.5)	7(0.3)	2(0.1)
친한사람만남빈도 ^a (범위 1-10)	3.2(2.38)	3.0(2.50)	3.6(3.09)

a. 점수가 낮을수록 빈도가 높음.

2. 자원봉사참여율과 참여요인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 2011년 조사한 65세 이상의 자원봉사참여율이 3.9%인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표 2]의 다른 사회활동과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이 상당히 낮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 참여율의 차이가 있었다.

표 3.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빈도, %)

구분	예비노인 (N=2397)	전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χ^2
자원봉사참여	95 (3.9%)	63 (2.5%)	15 (0.9%)	31.583***
자원봉사비참여	2302(96.1%)	2442(97.5%)	1520(99.0%)	(df=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가지 특성별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다른지 교차분석 또는 t-검정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다.

예비노인집단은 성별(유의도 .10 수준), 학력, 종교, 노동여부,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의 정도, 주관적 건강상

태, 우울의 정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녀와의 연락빈도, 사회활동참여의 정도,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빈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가 달랐다. 전기노인집단은 예비노인집단과 비슷하였으나, 차이점은 도시에 사는 사람의 참여도가 읍면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자원봉사참여율이 높다는 점과, 자녀와의 연락빈도의 유의도가 .10 수준이며 남녀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후기노인은 예비노인이나 전기노인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관련있는 요인이 적었다. 즉, 성별(유의도 .10수준), 학력, 종교(유의도 .10수준), 거주지역, 독거여부(유의도 .10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의 정도, 자녀와의 연락빈도,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 등에서만 약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노인의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여부

구분	예비노인 (N=2397)		전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참여(%) ^a	p^b	참여(%) ^a	p^b	참여(%) ^a	p^b	
성별	남	35(3.1)	.063	30(2.7)	.615	9(1.6)	.065
	여	59(4.6)		33(2.4)		6(0.6)	
학력	초졸이하	19(2.1)	.000	19(1.2)	.000	6(0.5)	.001
	중졸	18(3.2)		8(2.2)		3(2.4)	
	고졸	31(4.4)		20(5.3)		2(1.8)	
	대졸이상	26(10.6)		16(8.5)		4(5.5)	
종교	기독교	58(8.8)	.000	37(5.4)	.000	9(2.1)	.067
	불교	17(2.7)		10(1.6)		2(0.6)	
	기타	2(12.5)		1(6.7)		0	
	없음	17(1.5)		15(1.3)		4(0.5)	
거주지역	도시	74(4.0)	.774	57(3.2)	.000	14(1.3)	.047
	읍면부	20(3.7)		6(0.8)		1(0.2)	
동거가족	독거	7(7.4)	.720	9(2.5)	.977	6(2.0)	.051
	비독거	87(3.9)		54(2.5)		9(0.7)	
노동여부	노동예	32(2.6)	.000	11(1.5)	.027	2(1.4)	.641
	아니오	62(5.4)		52(3.0)		13(0.9)	
구분	평균(sd)	p/t	평균(sd)	p/t	평균(sd)	p/t	
경제상태	참여	65.3(20.2)	.000	56.8(22.1)	.001	60.7(24.0)	.002
	불참	53.0(21.1)		47.6(21.7)		42.7(22.0)	
주관적 건강상태	참여	3.4(84)	.005	3.1(88)	.001	3.2(0.8)	.001
	불참	3.17(88)		2.83(89)		3.36(2.5(0.9)	
우울	참여	2.2(2.4)	.000	3.2(2.8)	.005	3.6(3.1)	.040
	불참	3.3(2.8)		-3.9(4.3(0.3))		-2.8(5.2(3.0))	
배우자관계만족도	참여	77.7(16.3)	.000	74.4(17.3)	.001	72.9(18.0)	.282
	불참	68.4(17.5)		66.2(17.6)		65.1(19.1)	
자녀연락빈도	참여	2.6(1.0)	.002	3.2(2.8)	.061	3.2(1.4)	.045
	불참	3.2(1.6)		-3.2(4.3(0.3))		-1.9(4.1(1.7))	
사회활동	참여	1.7(1.0)	.000	1.6(0.9)	.000	1.5(0.7)	.000
	불참	1.2(0.8)		6.9(0.9(0.7))		7.5(0.7(0.7))	
친한사람만남빈도	참여	2.1(1.4)	.000	2.2(2.0)	.009	2.4(2.3)	.149
	불참	3.2(2.4)		-4.4(3.0(2.5))		-2.6(3.6(3.1))	

a. 교차분석은 참여하지 않은 노인도 포함한 것이며 표에서 제시한 참여율은 각 구분별 자원봉사 참여율을 의미함.

b. Chi-square 또는 Fishers' exact test의 p-value값임.

표 5.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영향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기준변수)	예비노인 (N=2397)			전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24.346	22495.84	0.000	-23.618	15877.948	0.000	-22.910	22643.481	0.000	
인구사 회학적 변인	성별(남자)	0.374	0.324	1.454	0.395	0.371	1.484	-0.144	1.278	0.866
	학력	0.410**	0.148	1.507	0.515**	0.163	1.674	0.572	0.432	1.772
	종교(없음)									
	기독교	1.639***	0.361	5.152	0.937*	0.362	2.552	1.607	0.992	4.989
	불교	0.488	0.432	1.277	-0.456	.550	0.634	-16.203	2820.485	0.000
	기타	1.978*	1.126	7.226	-17.419	11256.296	0.000	-11.557	40192.970	0.000
	독거	17.194	22411.192	29321694	16.359	15877.948	12721331	-1.521	22930.546	0.218
	읍면부 (대중소도시)	-0.3446	0.330	0.708	0.705	0.470	2.024	17.029	1987.593	24876957
	노동할	-0.827**	0.309	0.437	-0.577	0.403	0.562	1.329	1.402	3.777
	경제상태만족감	0.023	0.009	1.023	0.005	0.009	1.005	0.053	0.026	1.055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0.115	0.184	1.122	0.021	0.200	1.021	0.335	0.699	1.397
	우울정도	0.010	0.062	1.010	0.017	0.061	1.017	0.148	0.193	1.159
	배우자관계만족도	0.015	0.010	1.015	0.015	0.010	1.015	-0.016	0.032	0.985
사회적 관계	자녀연락빈도 ^a	-0.110	0.109	0.895	-0.014	0.111	0.986	-1.027*	0.515	0.358
	사회활동참여	0.364***	0.166	1.440	0.550**	0.185	1.734	0.643	0.606	1.903
	친한사람만남빈도 ^a	-0.256*	0.100	0.774	-0.190*	0.102	0.827	0.022	0.175	1.022
			-2LogL = 454.916				-2LogL = 360.961			
			Chi-Square = 125.224*** df=15				Chi-Square = 88.581*** df=15			
							-2LogL = 44.842			
							Chi-Square = 33.720** df=15			

a. 점수가 낮을수록 빈도가 높음 + p<.10, * p<.05, ** p<.01, *** p<.001

이러한 요인들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어느 정도 유효한 영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예비노인의 자원봉사참여여부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종교로 응답한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들보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노동을 하는 노인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그 외에 비록 .10의 유의수준이지만, 기타종교를 믿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참여확률이 높았으며,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확률이 높았다. 51%가량 아직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력, 종교,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을 사회자본으로 볼 때, 이러한 사회자본이 많은 것이 자원봉사 참여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전기노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자원봉사참여 확률이 높았으며, 사회적 관계 중에서는 참여하는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

고, 유의도 .10의 수준이었으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건강이나 경제적 상태, 노동여부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참여여부와 연관이 있었으나 다른 요인과 함께 분석했을 때 예비노인과는 달리 경제적인 면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소득수준과의 연관성과는 다른 결과이면서 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받는 후기노인과의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노인의 연령집단을 나누어 봐야 할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후기노인은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후기노인에게는 다른 사회적 관계 보다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관련이 있었으나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영향을 미쳤던 인구학적 인 것이나 건강요인보다는 경제적인 것과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결과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참여율이 저조하며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후기노인에게 가족 특히 자녀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을 함을 시사하며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경제적 상태는 전기노인보다는 연령이 높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교적 저조한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에 비추어 자원봉사 참여와 관련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가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바 있으나 자원봉사의 참여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의 체계적 표집방법으로 표집된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살피고 참여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범주를 확대하고 노인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각각 응답자 중 3.9%, 2.5%, 0.9%만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노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종교활동이나 친목활동 등 기타 사회활동의 참여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았다.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은 친목모임(39.9%)이나 종교모임(19.1%)에 대한 참여율도 낮은 편이라 전반적으로 사회활동참여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별요인을 놓고 보았을 때,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요인, 사회적 관계 요인 모두 각각의 연령 집단의 자원봉사활동참여와 관련이 있었다. 세 집단 공통으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과 경제적 만족감, 건강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수준, 그리고 사회적 관계 중 자녀와의 연락빈도(전기노인 .10수준), 사회활동참여의 정도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연관이 있었다. 동시에 세 집단별로 상이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결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다른 연령집단에서 거주지역과 자원봉사 참여여부가 연관이

있는 것과는 달리 전기노인집단은 거주지역에 따라 참여율이 다르지 않았고, 후기노인은 예비노인이나 전기노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셋째, 모든 변인들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 상이한 변인들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예비노인집단과 전기노인집단은 학력이나 종교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사회적 관계 중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반면, 후기노인집단에서는 자녀와의 연락과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로서는 참여율이 저조한 한국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이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인식하고 강조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은퇴나 자녀의 성장으로 이른바 '빈 보금자리(empty nest)'가 되는 등 가족생애주기의 변화로 역할의 전환을 경험하는 노인인구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2011년 45.1%로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41]을 고려할 때,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정책적 현안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때문에 자원봉사참여율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1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노동을 하고 있는 예비노인이나 전기노인은 시장경제가 일단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인구는 많이 참여해도 50%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노인의 여가생활 활용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TV시청이라든지 공원에서 무료로 시간을 보내는 행위와 같은 수동적 활동보다는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에도 유리한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능동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력개발원 등의 연구보고서[8][11]에서 제안하듯이 기존의 다양한 부처에서 마련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비노인이나 전기노인집단은 기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그런 기타 사회활동이란 종교활동, 친목활동 등을 뜻하며 넓은 의미의 사회관계 형성으로 친분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포함한다. 후기노인들도 자녀와 연락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사회적 관계망과 참여율의 관계를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주목할 것은 개별요인만을 따로 분석해 보면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건강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모든 요인을 같이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노인은 다양한 사회활동에 그만큼 참여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종교기관이나 노인의 친목단체 등 노인들이 참여하는 기관 등을 통해 노인의 자원봉사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로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11][27].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나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들에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그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노인은 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42] 이처럼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곧 이들에게 더욱 절실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므로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단체들과 연계하여 이런 노인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아웃리치를 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의 여가이용에서 대부분을 TV시청이 차지하는 것[43]을 감안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점은 특

히 자원봉사 프레임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각종 매체와 사회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유휴노년층을 상대로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과 실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적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 분명하다.

셋째, 노인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 세 집단 모두 유사하게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은 거주지역의 영향을 받고, 예비노인과 전기노인은 노동시장 참여의 영향을 받으며, 후기노인은 독거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집단과는 달리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세 집단이 동일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집단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연령별 특성을 분석하여 각기 집단에 적합하고 의미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모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의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한국 고령자 연구 패널이라는 전국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이 2008년이라는 지난 3, 4년간의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서두에서 밝힌대로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난 수년간 20%대에서 정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므로 그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자체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참여여부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에는 통계적으로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집중해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노인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과업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자료의 분석이란 원천적으로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변인들을 모두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객관적 요인의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방해요인(barriers)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44], 특히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에서는 의의 있다고 생각

한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힐 수 있었고, 급증하는 노년인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인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https://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18&tbbs=IN DX_001
- [2] 이강현, “세계와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현황II”, 김경동, 이강현, 정진경, *자원봉사의 이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pp.121-133, 2011.
- [3] J. Rowe and R. Kahn,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Vol.38, No.2, pp.433-440, 1998.
- [4] T. Y. Lum and E. Lightfoot,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older people,” *Research on Aging*, Vol.27, No.1, pp.31-35, 2005.
- [5] N. Morrow-Howell, J. Hinterlong, P. A. Rozario, and F. Tang,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58B, No.3, pp.S137-S145, 2003.
- [6] 김경동, *자발적 복지사회: 미래지향적 자원봉사와 나눔의 사회학*, 아르케, 2012.
- [7]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세 시대 대비 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포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 [9] 정진경, “노년기 자원봉사 시간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의 관계: 비선형성의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1호, pp.137-158, 2011.
- [10] 유정숙, 김가득, “노인의 지속적 자원봉사활동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3호, pp.247-270, 2010.
- [11] 지은정, 금현섭, 하세운, *고령화사회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 [12] 권태연,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9권, 제1호, pp.164-196, 2009.
- [13] 이인정,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건강,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19권, 제3호, pp.35-50, 1999.
- [14] 전해숙, 강상경,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 의료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의 연령차: 고령화 사회의 의료서비스에 주는 함의”,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1호, pp.28-57, 2012.
- [15] 한아름, 김여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3권, pp.75-104, 2012.
- [16] P. A. Bath and D. Deeg, “Social activity and health outcomes among older people,” *Journal of Aging*, Vol.2, No.1, pp.24-30, 2005.
- [17]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61-76, 2000.
- [18] Y. Jang and D. A. Chiriboga, “Social ac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The conditioning role of acculturation,” *Journal of Aging & Health*, Vol.23, No.5, pp.767-781, 2011.
- [19] M. A. Musick and J. Wilson, *Volunteers: A social profile*,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 [20] 김경동, 이강현, 정진경, *자원봉사의 이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1.
- [21] 김경동, 김여진, “Volunteer frame and volunteer culture”,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5권, pp.147-170, 2011.
- [22] 정순희, “노인의 자원봉사 행동의도 결정요인 및 자원봉사행동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1호,

- pp.227-247, 2008.
- [23] 정진경, “자원봉사활동의 동기관련 이론”, 김경동, 이강현, 정진경, *자원봉사의 이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pp.135-153, 2011.
- [24] 이현기,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생태환경변수의 효과:노화의 일반생태학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노년학*, 제32권, 제3호, pp.777-800, 2012.
- [25] 이현기,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0권, pp.263-290, 2010.
- [26] 조성숙,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을 위한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논총*, 제28집, 제1호, pp.307-332, 2009.
- [27] 강민연, 김춘경, “노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K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제30권, 제4호, pp.1409-1427, 2010.
- [28] 정순돌, 이은주,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면 접촉과 비대면 접촉”, *한국노년학*, 제25권, 제4호, pp.219-233, 2005.
- [29] 김창석, 최수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활동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15-326, 2012.
- [30] T. K. McNamara and E. Gonzales, “Volunteer transitions among older adults: The role of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in later life,”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66, No.4, pp.490-501, 2011.
- [31] H. Y. Lee and G. S. Jeon, “The influence of positive thought about social capital on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Koreans,”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pp.789-803, 2009.
- [32] 이금룡,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모집전략 방안”, *한국노년학*, 제23권, 제3호, pp.79-94, 2003.
- [33] J. Kim, J. Kang, M. Lee, and Y. Lee, “Volunteering among older people in Korea,”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62B, No.1, pp.569-573, 2007.
- [34] 김여진, 홍환, “중고령 전업주부와 취업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pp.93-118, 2009.
- [35] B. L. Neugarten,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 ol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415, No.1, pp.187-198, 1974.
- [36] 이미란, “노인의 건강성과 자아통합감의 영향경로에서 가족지지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80-290, 2012.
- [37] D. J. Levinson, *The seasons of a Man's life*, Alfred A. Knopf, 1978.
- [38] 이소경, “노인가구의 소비실태 분석”,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5호, pp.1-8, 2010.
- [39] 김미령,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 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197-222, 2006.
- [40] Y. Kim, H. Yoon, and J. Kim,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older cancer patients in comparison with younger cancer patients,” *Joint World Conference on Social Work and Social Development*, 2012.
- [41] 보건사회연구원, *노인빈곤을 완화를 위한 노인 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2013.
- [42] 강현정, 김윤정,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323-334, 2011.
- [43] 노재철, 고준기, “노인의 자립과 사회참가 등 사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647-660, 2012.
- [44] A. M. Petriwskyj and J. Warburton, “Motivation and barriers to volunteering by seniors: A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eer Administration*,

Vol.26, No.6, pp.3-25, 2007.

저 자 소 개

김 여 진(Yojin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윤리교
육과(문학사)
- 1997년 5월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MSW)
- 2007년 12월 : University of
Chicago(Ph.D.)

▪ 2009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 다문화